

신과 부처가 살아가는 마을



하치오지야마
히에이산의 일각을 이루는 산. 산정에는 고가네노오이와가 있어, 히요시타이샤의 뿌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히에이산의 고대신앙

고대, 우주의 모든 것에 신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인은, 조상영혼의 신들이 내려오는 성지로 산과 숲을 특별히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영봉, 히에이산도 그 하나. 히에이산의 신들을 모신 곳이, 산록의 거리 사카모토에 좌정한 히요시타이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신과 부처가 히에이산에서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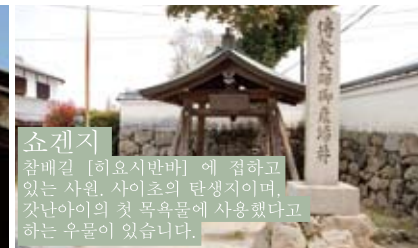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 히에이산 엔라쿠지를 연 고승 사이초는 약 1200년 전에 산 기슭의 마을 사카모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후에 일본을 대표하는 스님이 된 사이초는, 견당사로 중국에 유학. 귀국 후, 엔라쿠지를 창건하면서, 중국 천태종에서 배우고 히에이의 신들을 수호신으로 했습니다. 이후, 신들의 배후에서 부처님을 보며, 신들은 부처의 화신이 되어 사카모토의 사람들의 생활의 세부에 신앙심을 침투시켰습니다. 이것이 신불습합입니다.

◎신불습합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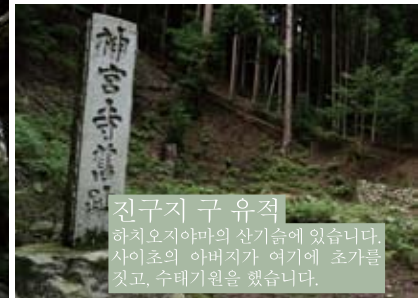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전, 메이지정부는 신불분리령을 발표하고, 1000년에 걸쳐 축적되어 온 신불습합의 역사에 종지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일본 곳곳에 절과 신사의 혼재를 볼 수 있고, 신불습합의 모습을 기릴 수 있습니다. 히에이산 사카모토에서도 마찬가지로, 엔라쿠지의 회봉행이나 히요시타이샤의 축제나 건축물 등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고가네노오이와
거대한 큰 바위로, 양옆에는 부부의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는우시오구와 산노미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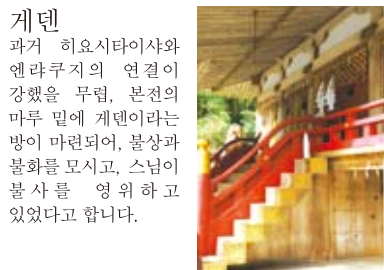
쇼겐지
참배길 [히요시만바] 에 접하고 있는 사원. 사이초의 탄생지이며, 깃난야이의 첫 목욕물에 사용했다고 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진구지구 유적
하치오지야마의 산기슭에 있습니다. 사이초의 아버지가 여기에 초가를 짓고, 수태기원을 했습니다.



산노우라이하이코
매년 5월26일 히요시타이샤 니시혼구배전에서 열리는 신불합동 행사. 구지의 축사 후, 엔라쿠지의 승려가 신전에서 법행을 행합니다.



게텐
파거 히요시타이샤와 엔라쿠지의 연결이 강했을 무렵, 본전의 마루 밑에 게텐이라는 방이 마련되어, 불상과 불화를 모시고, 스님이 불사를 영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노토리이
히요시타이샤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토리이, 토리이의 상부에는 합장의 모양을 나타내는 기둥이 있어, [합장토리이] 라고도 불리며, 신불습합의 신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